

韓國에서의 社會主義 知識人과 農民・勞働者問題

—植民地 社會에서의 社會主義의 存在樣式—

陳 德 奎

- | | |
|--------------------------------|----------------------|
| I. 문제의 인식 | IV.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문제 |
| II. 사회주의의 유입과 지식인 | V. 결론: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사회 |
| III. 식민지 사회에서의 농민과 노동
자의 개념 | 주의 지식인의 한계 |

I. 문제의 인식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유입은, 비서구사회의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기존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의 유입이 부르조아 지배계급에 속하는 지식인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은, 비서구 식민지 사회의 상황적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 당시 비서구 사회의 지식인들은 예외없이 지배세력으로서의 부르조아 계급에 속했으면서도 그들의 사회가 제국주의의 침탈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반제민족운동의 이념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대응적 논리로서 사회주의가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¹⁾

식민지사회의 지식인이라는 그들의 특징 자체가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1) Ian Cummins, *Marx, Engels and National Movement*, London: Croom, Helm, 1980, pp.49~53.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를 쉽사리 민족운동의 이념으로 수용하게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그 속에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²⁾ 1) 사회주의를 반제민족운동의 가능성으로 파악했으며, 그 당시 민족주의가 보여주었던 이념적 한계를 그것에 의하여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사회주의는 반자본주의적인 국제연대의 이론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해방의 현실적인 논리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3) 또한 사회주의는 식민지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가능성의 이념이기 보다는 당위적인 논리라는 평가가 행해지고 있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것을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들의 민족운동의 이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900년대 초기부터 사회주의는 이미 이념의 국제화를 확립하기 위한 단일구조적 지도체계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³⁾ 이때 올르기적인 경직성과 해석의 권위적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주의로서의 사회주의의 변용은 사실상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민족운동의 이념으로서, 그리고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그 이념적 특정성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중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에서의 혁명의 주도계급의 설정과 민족의 통합에 대한 것과 계급적인 특정성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그리고 민족독립국가 형성이후의 체제 선택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만,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욕구에의 접합은 반제국주의적인 투쟁에서의 공통성이라는 사실만은 예외에 속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가 1) 민족해방우선론과, 2) 계급혁명실천론의 두가지 흐름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였다.

먼저 민족해방우선론은, 식민지에서의 민족운동은 중국적으로 민족의

2) Robert Bryme, *The Intellectuals and Politics*, 참조.

3) 이것이 곧 코민테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것을 참조할 것.
村田陽一編譯, 「コンミンテルン 資料集」, 大月書店.

해방을 실현하여 민족자존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민족해방의 이념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민족해방우선론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며 해방의 사상이라는 사실과 식민지 해방투쟁에서의 전세계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식민지 사회내의 활성적인 민족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이념적 무장이 이것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이었다. 민족해방우선론은, 실제로 식민지 사회에서의 민족지도세력이 민족적 응집력을 구축할 수 있고 민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비서구 식민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이 제국주의의 침탈세력과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민족지도세력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비록 그러한 지도적 세력이 있었다 해도 제국주의자와의 협력관계에 있었던 세력에 의한 도전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우선론은 민주주의 자체의 미발달과 지도세력의 한계에 의해서 실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계급혁명실천론은, 식민지 사회의 민족해방은 사회주의의 이념의 중국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족해방은 단순히, 제국주의세력이라는 침탈적인 외래민족과 그 민족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자기민족 사이의 투쟁으로 파악하는 것은 표면적이고도 단순한 인식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국주의국가의 지배세력인 부르주아와 식민지 사회의 부르주아가 연대하여 식민지 사회의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형태가 곧 식민지 지배체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 민족의 해방투쟁은 자연히 2중 혁명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그것의 궁극적 투쟁은 계급혁명의 실천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식민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는 민족해방운동의 본질에 대한 규정의 문제로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민족해방투쟁

도 곧 이러한 규정의 한 범주에 해당하였다. 1925년 조선공산당의 조직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민족해방에의 실천적인 가능성이 모색되었지만, 이 기간을 전후로 하여 이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연관성은, 민족해방 우선론의 주장은 온건좌파의 제보로 정립되었고 계급혁명실천론은 급진좌파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온건좌파의 세력이 민족해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전민족성원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자와의 실질적인 투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의 고취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급진좌파의 경우는 조선노동당을 조직화하였고 민중에 의한 계급혁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내에서의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투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일치시켰으며, 이는 곧 식민지 사회내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추구하려 하였다.

당시 사회주의세력의 구성은, 대부분 다른 식민사회의 성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나 실천적인 전개는 관념론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세력이 혁명의 주도계급으로 설정하였던 혁명의 기본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는 산업노동자와 농민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한 성격은 강하게 나타났다.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운동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어떻게 민족해방운동의 욕구를 수용해갔는가의 문제는 곧 실천적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연계과정에서의 실천성으로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주의 지식인이 민족해방의 실천과정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또한 이를 실천적인 차원으로 전개하였는가의 문제는 자연히 식민지로서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유입과 지식인의 성격을 살펴보고, 사회주의의 조직체로서 조선공산당의 성격을 그 시대의 특징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고찰에서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지식인의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의 이중적

육구를 그 시대의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화했으며 실천적 지향성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점이며, 지식인의 인식과 현실 상황과의 격차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식민지 사회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체제라는 성격때문에 산업노동자계급의 형성이 취약했고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농민문제와 산업문제를 어떻게 연관시켰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

Ⅱ. 사회주의의 유입과 지식인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유입은 주로 세 갈래에 의해서 나타났다. 첫번째는 일본의 동경유학생들에 의해서 이른바 신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으로, 또는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탐구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주로 국내에 유포되었다. 이들 유학생들은 비록 학생이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지식인의 대명사였다. 외국에서 학습한 사상을 유포하면서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적 특성을 각종의 조직체의 조직을 통해서 그 위세를 이용할 수 있었다.⁴⁾ 두번째의 유입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이전에 이미 연해주나 만주 등으로 망명해주었던 인사들에 의한 경우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에 자극받아서, 사회주의가 새로운 사회의 이념이며 사회주의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며, 나아가서 식민지 상태에 있는 한국의 민족해방도 이것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국내침투는 러시아의 지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밖의 또 다른 한 갈래는 상해로부터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이었다. 상해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사상에 쉽사리 접할 수 있었고 그것에 의한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의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었다.

4)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 1권,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참조.

이와 같은 세 갈래의 사회주의사상은 자기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었지만 초기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즉 동경 등 일본 유학생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상의 책자가 독서되었고 각종의 청년학생단체의 조직에 의해서 공동탐구되었다. 이러한 책자나 학생조직체는 1) 사회주의를 신사회과학의 조류로 인식하여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조직체들은 일종의 지적 동호단체의 의미가 강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계몽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즉 사회주의에 의한 직업혁명가로서의 자기결단보다는 그것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의식의 각성에 치중하였다. 동경 등지의 유학생들이 보여주었던 성격이 신사조의 유입이라는 점에 특징을 두었다면, 연해주 등 러시아의 영향에 의한 사회주의의 유입세력은 보다 더 실천적인 성격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계몽적인 사상의 의미로서 보다는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의 투쟁적 차원에서 생각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조직이나 전위세력의 구축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한편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중에서 사회주의에 접촉했던 인사들의 경우는 그들의 개인적인 지도역량을 국내에 확립하기 위한 선각적인 지도자로서의 성격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주의적 주장을 내세웠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세 갈래의 유입은 대체로 1910년에서 1920년대 초기까지는 일본유학생들에 의한 영향력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기간이었다. 이 당시의 사회주의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 구체성이 없었고 단순히 새로운 사상의 학습과 전파,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사회과학연구회라던가 또는 신사상연구회 등의 명칭은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반영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들의 이론적인 수용은 러시아나 유럽적인 사상적 맥락보다는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특징이 있었고, 일본인에 의하여 번안된 사회주의의

계몽적 성격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주의는 그 사상적 내용을 1) 역사발전에서의 사회주의 도래에 대한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변혁기나 또는 사회적인 혼돈기의 일반 민중들에게나 지식인들에게는 마치 종교와 같은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사회주의에서의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던가 무계급사회로의 지향과 같은 논의는 한국의 민중신앙의 성격과도 쉽사리 연관될 수 있었다. 2) 사회주의사상에서 계급투쟁의 의미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대립을 현실적으로는 지주와 소작농민의 대결로 쉽사리 치환시킬 수 있었고 지주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세력과 연대된 통치세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은 곧 반일적인 민족해방투쟁의 구체적 논리로서 평가되었다. 3) 이전의 영미위주의 서양에 대한 인식관념에서 점차 독일과 러시아 등 동구권을 서양사상의 중심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국제관계에서는 일본의 국력이 러시아보다 약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민족해방 지원의 중요국가로 설정하게 되었다. 4) 특히 식민지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같은 아시아국가인 중국과 인도차이나 등의 민족독립운동에서 전통적인 민족주의세력의 사회주의 수용과 그 지역의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의 민족해방에 관한 이념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의 초기적인 성격은 그 뒤 192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30년대 초기까지는 지식인과 사회주의의 제 2 단계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3·1 운동 이후 우파민족주의 이념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그것에 의한 민족해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 뒤의 조선공산당 창당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주의사상이 계몽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실천운동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제 2기에서는 사회주의는 그 조직의 구성과 유지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우파민족주의와 이론적인 논전을 전개하여야 했고 다른 한

면으로는 일반청년학생들과 대중들의 지지도를 높여서 조직 구성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가 행해졌다. 이 당시 사회주의의 중심세력이었던 조선공산당의 조직자체가,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일본유학생 중심의 초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속성에서 어느 정도 이탈된, 다시 말하면 상해와 만주 등지의 급진적인 독립운동 지도세력과 국내의 지식인 사이에 이루어진 결합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지식인들은 주로 일본유학생들에 의한 지적 자극과 나아가서 중국 등지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했으며 이들은 일본유학생들의 경우에서 처럼, 지적 욕구나 계몽적인 과시에서 보다는 민족해방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현상극복논리로서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는 전자에 비하여 투쟁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보여주었고, 민족운동의 실천적 성격을 사회주의에 의하여 추구하려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국내의 사회주의적 지식인에 의하여 조선공산당이 주로 조직되었음은 1) 한국의 민족해방을 사회주의의 이념과 조직에 의해서 전개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전제되며 2) 그러한 실천의지를 일반민중에게 의식화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조직의 광역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은 곧 제 2 단계의 지식인의 사회주의운동이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예비적인 조직체계화의 성격을 마련하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노력도 식민지 통치세력에 의하여 억압좌절됨으로써 조직화의 거듭되는 시도만으로 반부되었고 그러한 성격이 1930년대 초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식민지시대 지식인과 사회주의운동의 제 3 단계는, 공산주의운동에 관한 코민테른의 테제에 의하여⁵⁾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 조직하에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공산당 조직으로의 전환이 모색된 이후부터 실천적인 투쟁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실천적인 운동이 민족주의세력과의 연합전선의 형태로서 또한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인

5) 「코민테른 자료집」 제 4권 참조.

지식인 사회주의운동에서 벗어나서 전투적이며 교조적인 계급혁명의 전위조직체로서의 활동이 추구되었던 것도 이시기 이후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회주의 지식인의 성격도 여러 갈래로 분화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여전히 계몽적인 사회주의 지식인의 위치에 있었던 경우이다. 이들은 진보적인 사회주의사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양식은 지배계급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모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인 실천과정에서는 유훈적인 존재로서 또는 단순동반자적 위치에서 있게 되었다. 두번째의 경우는 직업적 혁명가로 자처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비록 국내에서 전문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지만 실제 생활과정에서 현실극복의 필연성을 사회주의이론에 의해서 논리화하고 행동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혁명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곧 제3단계의 사회주의 투쟁적인 지향을 주도했던 인사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점점 그 영향력을 국내의 도시산업 노동자층이나 또는 빈민층에게 구축하였고 이들에 의한 공산당의 조직활동이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3단계의 사회주의투쟁은 공산당의 조직을 노동자 농민층에 두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천적인 성격이 더 한층 추구되었다. 그리고 운동의 지도적인 성격은 국내 지식인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면서도 그것의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기층은 농민·노동자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주의는 주로 자체내의 분파적인 속성과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관념적인 욕구때문에 주도권 장악의 경쟁이 나타났고 그 때문에 효과적인 투쟁은 전개될 수 없었다.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유입과 그것에 의한 사회주의 지식인의 활동은 자연히 지식인의 속성에 의하여 계몽적 속성과 조직의 주도권의 장악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나 실천보다는 그 두 가지를 이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식민지에서의 사회주의가 보여주었던 민족주의와의 통합을 이룩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점점 사회주의의 실천적인 운동에서는

동반자적 속성이나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위치의 자기 한정적인 구속을 보였고 이는 민족해방운동에서나 계급적인 차원에서 단지 측면적 효과만을 보태주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은 사회주의 지식인의 관념과 실천의 불일치에서 오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Ⅲ. 식민지 사회에서의 농민과 노동자의 개념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운동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운동의 대상이 제 1 단계에서는 국내의 지식인 계층에 있었으며 제 2 단계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의 조직화를 둘러싼 노동자 농민층의 포섭에 치중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지식인의 활동이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하여 노동자 농민층이 중심이 된 계급혁명의 추구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1) 민족과 계급간의 인식에서 야기된 문제로서,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을 어떻게 일치시키며, 그 관계를 대결적이거나 극복적인 것으로 규정할 경우 민족해방의 현실성을 계급혁명속에 어떻게 포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그리고 사회주의이론의 보편적이고 일원적인 논리와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특수성 사이에서 생기는 격차문제의 해소가 대두되었다. 즉 사회주의의 이념에서는 세계사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대적 정황을 상정하여 그것에 의한 대응적인 혁명운동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이 대부분 관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농민이나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적용력이 약했다. 또한 그것을 식민지 사회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치적인 효과나 사회변혁의 가능성 등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이념은 한국사회에서는 단순히 지식인운동으로서, 또는 특정집단의 사회운동의 성격으로서 일관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먼저 한국사회에서 식민지의 통치구조에 의

하여 전개되었던 농촌사회의 분해와 일본제국주의의 군수공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었던 한국도시 산업노동자의 대두를 연관시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의 농촌에 대한 총독부 통치의 최초의 충격은 바로 1918년의 토지조사사업의 완료이다.⁶⁾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이것에 의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 뒤에 1) 일본 총독부의 수탈정책과, 2) 자본주의 침투의 성격, 즉 상업자본주의나 산업자본주의적 성격의 침투, 3) 그리고 농촌사회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전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먼저 일본의 한국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00년 전후에서부터 토지조사사업이 끝났던 1920년까지를 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시기는 농촌사회가 전통적인 구조를 주조로 하면서도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의 특성을 보여주었던 기간이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그 다음의 기간에서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자본이 침투함으로써 산업화의 일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농촌사회는 고리대금업에 의한 상업자본주의적 침탈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농촌사회는 극도로 피폐하였고 내재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한 사회의 분화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역외자본주의적 성격에 의한 종속적인 공업화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시기였다.⁷⁾

1920년대 이전까지의 농촌사회는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지주·소작관계의 법적인 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에 의하여 농촌사회에서는 전통적 지배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그대로 온존될 수 있었다. 특히 식민지로의 병합에 따라서 전통적인 지배세력은 경제적인 특권의 보전을 법적으로 보장

6) 朴文奎, “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事業に就て”, 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朝鮮社會經濟史研究」1933, 宮嶋博史, “朝鮮土地調事業研究序說”, 「アジア經濟」XIX-9, 1978.9.

7) 안병직, “일제식민지의 경제적 유산과 민족해방의 의의”, 「한국경제론」까지, 1977, pp.19~50.

〈표 1〉 地主의 土地集中度推移

年	地主戶數			總耕地에 대한 小作地의 비율			농가총호수에 대한 비율		
	地主(甲)	地主(乙)	計(%)	畝	田	計	자소작농	소작농	計
	千戶	千戶	千戶	%	%	%	%	%	%
1918	16	66	82(3.1)	64.6	42.6	50.4	39.4	37.8	77.2
1922	17	82	99(3.7)	64.3	42.9	50.6	35.8	40.8	76.6
1926	21	84	105(3.8)	65.1	42.7	50.7	32.5	43.3	75.8
1930	21	83	104(3.6)	66.6	49.1	55.5	31.0	46.5	77.5
1932	33	72	105(3.6)	67.4	49.8	56.4	25.3	52.8	78.1

비고 : 地主戶數 計란의 %는 해당년도 농가 총호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 장시원, 前揭論文에서 재인용,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附錄 第3,9表.

반음으로써 농촌에서의 대지주로서 그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우월성을 향유하게 되었다.⁸⁾ 이들은 대지주로서 일본의 동척(東拓) 등 대지주와 함께 실제로 농촌대지주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18년만 해도 지주는 농가총호수의 3.1%에 불과했으며, 자·소작농이 39.4% 소작농이 37.8%로서 나타나 있었는데 이는 곧 지주·소작관계의 초기적 성격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산업별 생산액에서 농업의 비중은 여전히 80.5%로 되었으며, 전체호수중 농가호수는 2,635,000으로(이중에는 임업종사자의 수도 포함되었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 농림업종사자의 증대가 불과 2,879,000호로서 0.92%의 증대라는 미미한 것임에 비하여 상업·교통업과 공무·자유업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두배이상으로 증대되고 있다.⁹⁾ 이는 곧 농촌지역에도 점차 상업

8) 장시원, “일제하 농민층 분해의 양상과 그 성격”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p.172에서는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선농촌에서는 식민지적·반봉건적 토지소유가 지배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의 농민층 분해는—일국에 지주, 타국에 토지가 전혀 없거나 토지가 적은 광범한 농민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그 시대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9) 조선총독부, 「조선통계년보」, 남조선파도정부, 「조선통계년감」 위 두 책을 조합하여 정리한 안병직, 전계논문, p.24.

자본주의의 성격이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성격은 주로 소비상품의 구매층으로서의 농촌지역의 변화와 함께 고리대금과 같은 전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식민지의 일본통치정책이 주로 경제적 약탈에 주안점이 있었고, 그러한 약탈의 대상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농촌사회는 곧 식민지 통치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약탈로서 토지의 점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이익확보, 그리고 소비재공산품의 판매에 의한 이윤확보 등이 행해졌다. 간접적인 약탈로서는 전통적 농촌사회를 분해하여 농업인구를 도시 산업노동자로 유출시킴으로써 저임금 노동력으로 전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탈의 기본구조로서 농촌의 분해를 가져온 상업자본의 침투가 1920 년에서 1930 년간의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1930 년대 이후의 시기에서는 농촌사회가 지주·소작의 기본계급구조를 근간으로 하여 재편되기 시작했으며, 지주의 경우 1932 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가총호수의 3.6%로 약 10 만호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소유한 경작지는 여전히 증대되어 전농지의 56.4%를 차지하였다. 완전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 52.8%에 이르게 되었고 전농가의 25.3%는 자·소작농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18 년과 비교할 경우 지주의 수는 0.5% 증가했지만 소작지는 6%, 소작농은 15%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곧 “일부 지주가 급속히 토지소유를 집중해갔다는 것, 그리고 동일과정의 다른 한 측면으로서 토지없는 소작농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¹⁰⁾

구체적으로, 1925 년의 자료에 따르면 지주중에서도 대지주라 할 수 있는 20 정보이상 소유자는 전체 지주층의 6%이고 5~20 정보의 토지소유지주는 약 19% 나머지 76%는 5 정보 미만의 영세지주였다.¹¹⁾ 이러한 사실은 곧 농촌사회가 지주와 소작농의 양극적인 계급분화를 보여주게 되었고,

10) 장시원, 앞논문, p. 173.

11) 앞논문, p. 174; 조선총독부, 「朝鮮の小作慣習」 1928, pp. 31~33.

실제로 소작농으로도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농민이 속출함으로써 이들은 고농이나 또는 도시유민으로 전출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농촌사회는 곧 대지주에 의한 토지의 점유가 강화되었으며 자작농은 사실상 소멸되기 시작했다. 소작농의 경우도 소작에 의한 소출로는 생계의 유지가 불가능했다. 농촌사회의 이러한 성격은 대지주가 대부분 농촌부채지주로서 도시에 거주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농촌사회의 지배는 자연히 지주와 식민지 사회 지배세력의 등식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은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구조적 계층화의 종속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도시중심의 공업화는, 식민지통치세력의 경제약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식민지에서의 공업화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역의분업적 요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¹²⁾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전개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부르조아에 의한 초기공업화에의 이행을 보여주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자본의 열세와 비합리성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1) 상인자본가적 위치로 퇴행하여 일본의 대자본가와 경쟁이나 마찰을 피하면서 농민이나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에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2) 또한 일본의 대자본가에 의하여 병합되거나 또는 부속적인 하청 또는 종속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전형적인 매관자본가의 속성을 보여주는 선택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산업화의 전개에 따라서 대다수의 도시산업노동자와는 대립적인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이전에는 섬유제품이 전체 공업생산물에서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화학금속 기계제품이 40.9%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곧 일본의 산업자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이 일본공업제품의 소비시장이었음과 동시에 생산을 위한 노동공급시장이었음을 의미하였다. 공업화의 전개는 농업절대중심의 사회구성비율을 점차 완화하여 공업중사

12) 안병직, 앞논문, p.22.

〈표 2〉 조선인의 직업별 현주호수

(단위: 천호)

	농림업 A	수산업	광공업 B	상 교 통 업	공 무 자 유 업	기 타 유 업 자	무 직	합 계 C	A/C	B/C
1918 년말	2,635	41	64	200	52	102	44	3,139	%	%
1920	2,720	37	67	208	63	63	34	3,191	83.9	2.0
1922	2,711	41	77	215	72	87	40	3,242	85.2	2.1
1924	2,718	43	80	224	82	112	49	3,309	83.6	2.4
1926	2,823	49	83	241	89	143	56	3,484	82.1	2.4
1928	2,781	54	80	247	93	173	62	3,489	81.0	2.4
1930	2,879	60	90	256	108	213	74	3,679	79.7	2.3
1932	2,864	50	80	229	127	341	81	3,772	78.3	2.4
1934	2,895	55	101	281	132	299	93	3,857	75.9	2.1
1936	2,953	62	122	299	133	344	100	4,012	75.1	2.6
1938	2,951	63	173	333	135	348	99	4,102	73.6	3.0
1940	2,963	68	213	349	142	393	103	4,232	71.9	4.2
1942	2,976	93	329	383	193	477	136	4,587	70.0	5.0
1943	3,051	90	354	346	207	490	142	4,680	64.9	7.2
									65.2	7.6

자료: 安秉直, 前掲論文 再引用. 총독부 「朝鮮統計年報」; 남조선과도정부, 「朝鮮統計年鑑」.

자의 숫적 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사정은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다.¹³⁾ 구체적으로 1922년 7월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총수는 남자 88만 2,291명, 여자 36,312명으로 전부 약 92만명으로 기록되었다.¹⁴⁾ 그뒤 산업노동자의 숫적 증대는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약 10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는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보다 더 촉발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이른바 식민지에서의 군수공업중심의 산업화 추구에서 빚어진 현상이었다.¹⁵⁾ 대체로 1933년대의 노

13) 조선총독부, 「조선통계년보」: 안병직, 앞논문에서 재인용, p. 24.

14) 조선총독부, 「조선의 군중」, 1962년, p. 55.

이 책의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인이상의 공장에 고용된 공장노동자의 수는 남자 38,173명, 여자 9,870명으로 전부 48,043명으로 되어있다.

15) 권병욱, 「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勞動事情—1930年代を中心として」, 「歴史學研究」 303, 1965. 8, 참조.

동자 총수는 20 만명, 1937 년에는 49 만명, 그리고 1940 년에는 약 80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43 년 11 월의 조사에 의하면 공장노동자수 39만 명, 광산 28 만명, 교통운수 17 만명, 토건 38 만명, 기타 53 만명으로 총 계 175 만명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⁶⁾

농촌사회의 지주·소작관계와 도시산업노동자의 숫적 증대 등은 당시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사회가 실제로는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수용과 그것에 의한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의 2 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주의세력의 이론적 논리와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서 한국의 식민지적 특수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IV.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문제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이론적 성격은, 식민지 사회의 특수성과 경제구조의 변환적 속성을 전제로 한 이론의 자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이론공급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보여주었다.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던 초기에서부터도 그러한 성격이 지배적이었지만,¹⁷⁾ 가장 뚜렷한 예증으로서는 1928 년 코민테른 12 월테제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¹⁸⁾ 여기에서는 “조선에서의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동맹의 적극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조직의 공고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재조직하고 그것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최중요층을 획득하고 정치적 요구를 내걸은 경제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임을 결정하였던 1925 년의 코민테른 결정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즉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의

16) 앞논문 참조.

17) 최초의 조선공산당에 관한 코민테른의 결정과 지시는 1921 년 11 월 15 일자의 「조선문제에 있어서 조사위원회의 결정서」이다. 「코민테른 자료집 I」, p. 74.

18) 이것은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식민지 테제속에 포함되어 있다. 「콘민테른 자료집 4」, p. 487.

위기를 객관적인 조건(즉 공업의 미발달에 의하여 공장 프롤레타리아의 숫적 근소, 유치단계노동인구의 이동의 빈범함, 조직의 위약성,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 내부의 파쟁에도 그 근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코민테른은 조선노동당의 전면적인 재조직을 지명하였다. 1)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중요방침은 한편으로 혁명운동을 왕성하게 하여 소부르조아민족운동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의식을 강조하고 민족독립에서 분리된 민족혁명운동을 왕성하게 하여 민족독립운동의 우유부단성을 부단히 가차없이 폭로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에 있어서 공산당원은 거의 지식계급 및 학생뿐이었다.……바로 이렇기 때문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번째 사업은 과거의 오류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소이다.……조선공산당은 부르조아 및 지식계급으로 조직하고 노동자와 교섭이 없었던 것이 현재까지… 위기를 낳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3) “조선의 공산주의자는……명확히 소부르조아 정치와 분리하고 혁명적 노동운동의 완전한 독자성을 엄중하게 간직하여야 한다.” 4)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민족혁명운동의 중요부분인 토지혁명의 슬로건을 열심히 공포하고 통속화 시켜야 한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의 부정적한 투쟁을 폭로하여야 한다.” 5)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정치와 군사간섭에 대하여 열렬히 반항하고 소비에트연방을 수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코민테른의 테제는 구체적으로 조선공산당의 토지혁명을 위하여 소작료의 제한을 추구하고 누진세 설정주장, 농산물 강제가격 폐지 등의 세세한 면까지 지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한국 식민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을 배제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규정하는 전체적이고도 획일적인 사고나 논리는 조선공산주의운동으로 하여금 코민테른의 하수인격의 위치로 자리잡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공산주의운동으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들어내게 하였다.

물론 조선노동당의 자체적인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논리화가 전혀 없었

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 앞서서 1928년 3월에 안광천(安光泉)에 의하여 기초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론강」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자기인식의 한 경우이다. 이러한 성격은 「론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테제」와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¹⁹⁾

「론강」은 먼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과거 경제주의적인 인식에만 한정하여 정치투쟁을 부정했으며, 따라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참가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계급혁명지향만의 추구에서 벗어나 민족해방투쟁에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히, “1926년이래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을 정치주의로 전환하고 스스로 선두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러 조선민족의 각계급 각계층의 협동전선을 결성하는데 다대한 성공을 보게 된 것은 종래의 정책에 비하여 획기적 전진을 의미한다”로 이어짐으로써, 1927년 당시 민족적 협동전선의 성격으로 창립되었던 신간회의 조직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공산당이 그것에 관여한 것 자체가 이전의 경제주의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난 민족해방운동의 현실적 중요성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론강」의 이러한 자기 비판과 주장은 자연히 민족해방을 위한 협동전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안광천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민족해방운동의 의미가 단순히 전통적인 보수지배세력과의 연합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계급혁명의 지향을 뒤로 미루고 우선 민족혁명을 당면과제로 삼았으며 이는 곧 정치경제적 투쟁의 합일적인 전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실제로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그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⁰⁾

1. 조선의 극심한 식민지적 지위

19) 경성지방 법원 검사국 사상부, “비밀결사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사건 검거의 전”, pp.129~138.

20)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제3권, p.26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 봉건제의 잔존과 식민지 통치세력의 보호
3. 국민공업의 미발달과 부르주아의 위약
4. 프롤레타리아트의 열세적 형편이나, 혁명적 투쟁에서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
5. 대부분의 인구의 빈농소작인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하에 조직세력으로서의 전환 가능성
6. 국내의 혁명적 대중의 존재와 만주 등지의 교민과의 협조
7. 중국에서의 국민혁명의 전개와 그 영향
8. 인접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존재
9.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조직의 공고화

이와 같은 상황분석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기 보다는 논리의 전개를 위한 지나친 평가가 게재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혁명적 민중의 존재를 설정한다거나 또는 빈농·소작인들이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하에 조직되어가고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론강」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날의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 1기를 3·1 운동에서 노동총동맹의 창립까지로(1919~1923) 제 2기를 노동총동맹 조직으로부터 신간회창립까지(1924~1926) 그리고 제 3기가 신간회 창립이후부터라고 주장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을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종래의 부르주아 민족주의로서는 더 이상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야 할 조선공산당은 좌우 양극단의 견해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좌익소아병적 견해와 청산주의적 견해가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이항발(李恒發)일파

21) 안광천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지식인의 참여는 중요하나 투쟁의 전진과정에서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 등과 같이 우경탈락이나 반혁명화의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Ibid.*

의 주장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독립성을 기계적으로 고집하고 당연한 민족적 협동전선조직에 반대하면서 무산정당의 별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프롤레타리아트가 당면하고 있는 계급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의 동시적 속성을 무시하고 민족적 정치투쟁에 있어서 광범한 동맹자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청산주의적 견해는 장일성(張日星), 권태석(權泰錫) 등이 내걸었던 계급운동철폐론으로서 민족협동에 도취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독립성의 포기를 주장하고 전체투쟁의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를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논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독립성을 민족협동성에 해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중요명제를 소실하게 했다고 비판하였다. 즉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헤게모니를 부르조아에게 양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광천은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투쟁이 대립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민족적 협동을 소부르조아적으로 이해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운동과 청년운동은 공산주의 지도하에서 전개하여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협동전선을 요구하였다. 그밖에 그는 대중에게 해방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중적 청원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일부 조선귀족이나 타락한 부르조아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는 자치운동을 절대로 반대할 것을 내세웠다. 신간회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이 적극참여하여 신간회로 하여금 “적당한 조선의 혁명적 각계급 각계층의 특수한 동맹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산당의 지배적 주도권 장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안광천의 「론강」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이 부르조아와 민족주의자들의 소극적인 민족운동이나 자치론적 청원이 아니라, “절대보통선거에 기초한 조직적 국민회의를 확보하고……조선의 권력조직은 조선사회의 정세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공화국”이라고 천명하였다.²²⁾

22) 槐村秀樹, 姜德相編, 「朝鮮 5」, pp.195~212.

「테제」와 「론강」의 차이점은 곧 전자가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의 분리를 내세웠고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공산당조직과 농민중심의 계급혁명보다는 도시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후자의 경우는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을 동일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고 조선공산당의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연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갈래의 논의는 안광천의 「론강」이 비록 「테제」에 의해서 극복되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자의 독자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론강」은 그뒤 「테제」에 의해서 사회주의 지식인의 타협주의적인 논리로 비판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종속성은 한층 심화되었고 이는 곧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나 독자성의 결여로 나타났다.

「테제」에 의하여 농민과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계급혁명의 급진적인 추구는 코민테른의 인식이 식민지 한국에 대한 개별성보다는 주로 중국에서의 계급혁명이나 인도의 경우를 전제로 한 전반적인 식민지 농민·노동자의 계급혁명론의 적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나 농민의 현실적인 의식수준과 욕구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적 계급혁명을 전제로 한 농민·노동자 운동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코민테른의 1928년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에서 농민의 실상을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경제의 노동력을 단순생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처지에 있으며, 관청통계에 의하면 약 130 만호의 농가가 적자경영의 상태에 있다.……조선농촌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은 자작농과 소작농의 문제와 함께 빈농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조선에 있어서 지주, 상인, 고리대 투기업자의 수중에 토지가 전이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대지주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는 것과 연관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농민들의 토지의 세분화와 영세화가 전개됨으로써……궤배한 농민대중의 궁핍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²³⁾

23) 「코민테른 자료집 4」, p.489.

코민테른의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서 이른바 적색농민조합의 구축에 의한 농민의 의식제고와 지주에 대한 저항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농민조합사업으로는 1) 문맹퇴치사업 등을 통하여 농민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농촌청년에게 농항기를 이용하여 농촌 강습회를 열어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며, 2) 조선공산당 및 세계공산주의운동의 문건을 강독하기 위한 농민도서 종합소를 비밀리에 설치하며, 3) 농민문제에 관한 선동을 통하여 군중집회를 열어 지주를 성토함으로써 적대적 계급의식을 고양시킬 것, 4) 농민들의 부분적인 요구, 즉 소작료반대나 납세반대, 소작료인하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무산농민의 결집된 역량을 과시하며, 5) 지주관료에 대항할 수 있는 농민조직체를 구성하여 농민계급혁명을 전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²⁴⁾

한편 도시산업노동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여기서는 그것의 일반적인 기본임무로서 1) 제국주의에의 반대투쟁, 2) 민족 부르주아에 대한 반대투쟁, 3) 반자본주의 투쟁에의 연합, 4) 식민적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위한 공동투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선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사실에서의 주요임무로서 1) 혁명적 클럽의 조직, 2) 산업·농업노동자의 중요군중을 노동조합에로의 유인, 3) 합법화된 관설 노동조합에 대한 투쟁, 4) 대공장에서의 공장위원회의 창설, 5) 8시간 노동제의 주장, 6) 혁명의 지도강화와 노동자 출신 간부의 양성, 7) 실업자와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노동여자, 청년에 대한 사업의 조직 등이었다.²⁵⁾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의식의 고양과 농민·노동운동은 실제로 농민의 경우에는 적색농조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소작료인하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작쟁의나 일본인 등 대농장주에 대한 투쟁이 주조를 이루었고,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하여 파

24) 「조선 4」, pp. 201~204.

25) 앞논문, p. 211.

업으로 전개되었다.²⁶⁾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당시의 농민과 도시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성원으로 상정하여 이들에 의한 계급혁명의 전개는 결국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 농민이나 노동자의 투쟁의식은 정치적 성격을 전제하지 않은 채 그들의 생존에 연관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식민지 통치세력의 가열된 탄압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투쟁에서부터 정치적 투쟁으로 이행되지 못한 채 경제투쟁으로만 시종되었다는 점이다.
2. 농민과 노동자의 투쟁은 실제로 그 지도세력을 그들속에서 구축하는 노동자 농민중심의 자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식인 중심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운동의 현실담당 세력과 지도부 사이의 일치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3. 농민문제와 노동자문제를 대등한 평면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양자간의 특이성을 무시하였으며, 특히 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이익의 갈등관계나 의식의 대립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체로서의 계급혁명적 투쟁전략은 양세력 간의 상호견제에 떨어지게 되었다.
4. 농민이나 도시노동자들의 의식의 미성숙과, 특히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지주에 대한 정신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자에게는 한국인 자본가에 대한 인식과 특히 중소생산공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의 일체감의 극복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쟁의나 노동파업의 효과는 한단계 높은 형태로 고양되지 못했으며 특히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식이 계급의식보다 더 한층

26) 적색농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평농민조합, 영흥농민조합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1930년대의 농민투쟁을 들 수 있다. 飛田雄一, “定平農民組合의 展開—1930年代の赤色農民組合の一事例”, 「朝鮮史叢」, 1982. 5. 6號. 그리고 적색노조운동에 대해서는 원산, 부산 등지의 파업과 평양의 고무공장 등의 파업을 들 수 있다. 小林英夫, “1930年代 前半期の 勞動運動に於して”,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971. 강동진, “원산 총파업에 대한 고찰”, 「학술지」, 제12, 1971.

강했다는 점이다.²⁷⁾ 따라서 농민·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 투쟁과, 제국혁명, 민족해방의 상승적 지향은 일본통치세력의 억압에 기인하는 면도 있었고 또한 부르주아세력의 영향도 지적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의 수용과 적용에서의 한계점, 즉 식민지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그것에 의한 이념과 전략의 구축의 미비에서 연유되는 일면도 지적될 수 있다.

V. 결론 :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지식인의 한계

식민지 사회에서의 지식인은 식민지 해방투쟁을 위한 이념의 모색이나 수용을 사회주의에 의하여 충족하게 되는 일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식인에게서도 그 예외성은 찾을 수가 없다. 초기의 제몽적 단계에서 후기의 농민, 노동자 지도세력과의 연합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지식인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현실상황 간의 적절한 대응관계가 곧 민족해방운동과 제국혁명의 양자의 합일점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지식인을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세력의 지도체계로 설정하고, 사회의 현실상황을 식민지의 특수성으로서의 농촌의 분해과정을 전제로 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 양자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다.

농촌의 분해과정

		농촌의 분해과정	
		상업자본의 영향	산업자본의 총격
사회주의 지도체계	위로부터의 지식인	제몽적 사회주의 운동	소작노동쟁의 등 경제운동
	아래로부터의 지식인	저항적 (폭력)	농민운동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

27) Se-Hee Yoo, "The Communist Movement and the Peasant: The Case of Korea", *Peasant Rebellion an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edited by John Wilson, Stanford: Th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p. 74.

식민지 사회로서의 한국은 상업자본주의적 침투와 산업자본주의 영향이 중복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대체로 이 양자간의 교체기가 193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5년의 조선공산당 창당에서부터 193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지배세력이 사실상 지식인의 독점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물론 1930년대 이후에서도 이러한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농민, 노동자출신의 지도자가 충원되기는 했지만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다.

이 2가지의 연관관계에서 고려할 때 그 당시 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인 전개는 계몽적 사회주의운동을 주조로 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경제운동이 가미되는 소작, 노동쟁의가 행해졌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이 계몽적 사회주의운동에서 시작하여 소작, 노동쟁의 등 경제운동과 저항적 농민운동을 거쳐서 종국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저항적 농민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에는 이르지 못한 채 계몽적인 사회주의운동과 소작쟁의 등 경제중심의 운동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 의한 민족해방운동과 계급혁명의 동시 2중혁명의 지향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가져다 준 이유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지식인의 사회계층적 성격이 대부분 중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계몽적이고 선각적인 지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2. 사회주의 지식인의 중요한 지적 공급이 일본과 러시아였으며, 특히 코민테른의 결정이 가지는 배타적 권위와의 굴종이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주의운동의 지식인적 실천성을 구축할 수 없었고, 단지 외래적인 사태의 전개를 경쟁적으로 모방하는 것에만 치중하였다.
3. 대부분의 사회주의 지식인이 농촌에서의 농민적 경험이나 도시의 산업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와의 생활

이나 의식의 간격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농민이나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무시한 채 계급의식의 강조는 지식인의 노력으로도 그치게 했다.

4. 사회주의 지식인 사이의 공산당내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극심한 종파주의가 사회주의운동의 대국적 지향에 의한 협조적 체제를 구축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사회주의 지식인의 이러한 성격은 이미 그 당시 193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상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혼합된 경제구조와 함께 점차 산업사회의 도시화가 전개되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것에 부응하는 지식인의 자기 탈바꿈이 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사회주의 지식인에 의하여 행해졌던 사회주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종파주의적 성격으로 기능함으로써 민족유일당 운동이나 협동전선의 구축을 와해시켰으며, 계급혁명의 요구에는 오히려 그들의 의식과 종파성 때문에 저해적 요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곧 당시의 사회주의가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의 이질적인 양대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의하여 민족해방도 이룩하지 못했고 계급혁명도 성취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